



나무의 고통 외면 말라... 이방인 사제의 메시지



**'제주학 선구자' 타케 신부
천주교계 등 조명 심포지엄
환경위기 성찰한 미술 전시
회화·사진·설치 작품 등
타케 식물 채집본도 공개**

가 왕벚나무 자생지임을 처음 세상에 알렸고 일본에서 건너온 운주밀감 14그루를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오늘날 제주 감귤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천주교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와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사장 강만생)이 '제주학의 선구자' 타케 신부를 조명하는 사업을 벌인다. 이달 7일 오후 2시 동광성당에서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과 가치 전송' 심포지엄에 이어 13~22일에는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아름다움이 우리

를 구원할 것입니다'란 제목의 전시를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천주교 제주교구 부교구장인 문창우 주교가 기조강연하고 제주학연구센터장을 지낸 박찬식 박사,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황태종 천주교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강시영 전 한라일보 부국장, 송관필 제주생물자원연구소장, 황종열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장은 토론에 나선다. 타케 신부의 제주 사목활동, 식물학 연구와 제주 식물의 가치 전송 방향, 생태영성에 비추어 본 발자취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는 기후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타케 신부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새겨보는 전시다.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의

모습을 성찰해 새 하늘 새 땅으로 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정미영 작가는 110년 전 흥로본당(현 서귀포성당) 시절의 타케 신부를 떠올릴 수 있는 목상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강정호(사진), 박안자(동화), 리투아니아의 아그네 라티네(미니어처, 그림), 이승수(설치미술), 전영일(빛조각), 전홍식(도판화), 허정숙(한국화) 작가도 타케 신부와 만남을 이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 장진성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 식물분류학 발전의 터전을 마련한 식물학계 거목 이창복 박사가 에든버러 영국왕립식물원에서 가져온 타케 식물 채집본 20여 점도 공개된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천주교 제주교구 소년소년합창단 뽀로파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문의 064)726-6425.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 제주에서 13년을 살았던 에밀 타케 신부(1873~1952). 그 기간 7000점이 넘는 식물을 채집한 타케 신부는 제주

2019탐라순력 개발·보존이 첨예한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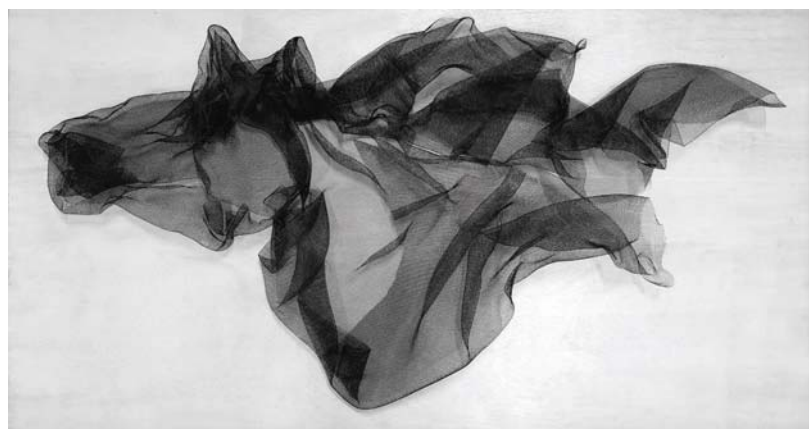
**창작공동체 우리 회원전
'보물섬 제주' 오늘 직시**

제주 중진 등 전업작가들로 구성된 '창작공동체 우리'가 '탐라순력' 작업으로 한해를 마무리짓는다.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탐라순력 2019-보물섬을 탐하다'란 이름으로 열다섯 번째 회원전을 펼친다.

'우리' 작가들은 서양화, 동양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 등 그 장르적 특성을 지키고 확장하거나 경계를 허물면서 창작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2005년 창립 이래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탐라순력'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변화하는 제주와 정체성의 문제를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첨예한 문제에 둘러싸인 제주의 오늘을 직시하고 '보물섬 제주'의 가치를 지



유종욱의 '윈드 오브 제주(Wind of jeju) 2019'.

켜나가려는 작가의 관점을 표현했다. 김연숙 김용주 김지은 김현숙 박금옥

유종욱 유종목 이다솔 조운득 홍진숙 등 10명이 출품한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쫓겨

연갤러리 김규승 초대전

영남대 회화과 출신으로 그간 열번의 개인전에서 줄곧 제주 풍경을 펼치며 제주와 인연을 맺어온 김규승 작가가 연갤러리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엔 소나무를 소재로 한지에 먹, 채색 등을 이용한 '생명의 노래'를 펼쳐놓았다. 풍설을 이겨내고 곳곳이 서있는 소나무에서 군자의 기상을 느낀다는 작가다. 전시는 이달 10일까지. 문의 010-3548-9810.

제주창작합창 페스티벌

한국합창연합회 제주도지회는 이달 8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창작합창페스티벌을 연다.

이날 공연에선 제주출신 작곡가 안현순, 박진을 비롯 정경숙, 임금수, 김준범, 이민정 작곡가 등이 만든 제주 소재 창작곡을 탐라합창제 대상팀인 와이닛! 연·노형합창단, 아라여 성합창단, 구좌합창단, 애월합창단, 제주지구 라이온스 합창단이 고운 화음으로 빛어낸다.

동아시아 수리사업 연구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는 이달 6~7일 인문대학 2호관 진양현석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속의 수리사업(水利事業)과 지역공동체' 주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첫날 정철용 명지대 교수의 '환경생태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의 수리사업'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학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해녀문화상품 입상작 전시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 공모전 입상작이 4일부터 제주해녀박물관 2층 실내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상품 발굴로 해녀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해녀문화 확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83점이 응모해 25점이 입상작으로 뽑혔다. 입상작은 내년 11월까지 상설 전시된다.

소리개떼 담은 다큐 영화 '비바 라 비다' 무비콘서트

국악과 플라멩코가 만나는 크로스오버 밴드 '소리개떼'의 음악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관객들과 잇따라 만난다.

매개러스튜디오가 주최·주관하는 '비바 라 비다 무비콘서트'가 이달 7일 오후 3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8일 오후 3시 서귀

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이 작품은 '음악의 힘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음악영화'(오동진)라는 평을 들었다. 이상목 감독이 연출을 맡아 제주에서 만난 예술인들이 국악과 플라멩코를 하나로 녹여낸 음악을 만들고 성장하는 모습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아가는 과정 등을 담았다. 무비콘서트에서는 영화 상영에 이어 소리개떼의 공연이 마련된다. 입장료 무료.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등록번호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 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못말리는 제주직항전세기

**예약폭발
마감임박!**

꽃보다 청춘! 제주직항 3박 5일

라오스 비엔티안/방비엔

12/11 **단하루**

관광패키지 **999,000원** ~
골프 54홀 **1,290,000원** ~

★전신맛사지 2시간
★카약 래프팅

★버라이어티 탐낭동굴
★블루라군

눈이 부시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제주직항 마카오 전세기

**취향별로
선택하는
여행상품
Set**

1. 주해/마카오 4일
799,000원(월, 수 출발)
★어은천포함 ★베네시안자유

2. 마카오/주해/심천 5일
899,000원(금, 일 출발)
★어은천포함 ★베네시안자유

브루나이공화국 3박 5일

제주직항 **1인** **12/21** ~
12/25 **1,590,000원**

대만 3박 4일

출발일: 여행사 문의 (팀별도)

699,000원 ~

말레이시아/싱가포르/말라카 쿠알라룸푸르/말라카/켄팅

매주 2회출발 (화, 목) **999,000원** ~
매주 2회출발 (화, 목) **799,000원** ~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 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2/28 ~ **2/19**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항 **선착순 899,000원**

★특식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신맛사지 1시간 (팀별도), 베트남 전통노자 증정, 스트리카 포함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일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